

권두언

인문과학을 뜻하는 *humanitas*는 어원적으로는 인간을 뜻하는 *humanus*에서 나왔다. 라틴어에서 인간을 뜻하는 용어가 두 가지 있는데 그 중 한 가지는 *homo*이고 또 다른 하나는 *humanus*이다. 전자는 *homo sapiens*, *homo politicus*, *homo religiosus* 등에서 볼 수 있듯 동물과 구분하여 인간을 지칭할 때 쓰이던 말이다. 후자인 *humanus*는 로마인들이 야만인이나 비로마인들을 *homo*라고 일컬은 것과 구분하여 자신들은 자칭(自稱)하여 일컫던 말이다. 이 말에는 로마 시민들이 헬라적 교양교육을 받아서 지성과 교양에 눈뜬 자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말하자면 이 용어는 Cicero 등이 로마 시민들의 아이덴티티를 두고 일컫던 개념이었다.

따라서 여기에서 나온 *humanitas*는 ‘인간됨의 학문’을 뜻한다. 실상 서양 사상사에서 Sokrates 이후 사상이나 동양에서의 철학적 전통을 볼 때 철학이나 역사같은 인문과학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인간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것이 근세의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의 본격적인 학문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 뜻은 인간과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세속학문을 가리켰다. 말하자면 이것은 ‘신의 학문’인 신학(神學)에 대립된 ‘인간의 학문’으로서의 인간학이었고, 인성(人性)을 문제삼고 인지(人智)에서 나온 인간(人間)을 위한 학문이었다.

16세기 이 인문과학은 Erasmus와 Rabelais 등에 의해 더욱 근세 유럽의 학문적 자존심으로 발전되면서, 반(反)교회, 자유교양, 인성 중시 등의 성격을 띄게 되었다.

우리가 기독교 학문적 관점에서 이러한 인문과학의 성격과 전통을 주시할 때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은 여러 인문과학 속에서 흐르고 있는 그것의 핵심되는 정신성이다. ‘세속학문’으로서의 인문과학의 전통에는 그 정신에 인본주의(人本主義)가 흐르고 있다. 그러면 인문과학은 인본주의 정신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우리가 철학과 역사와 문학을 할 때 이런 인본주의의 정신을 지울 수 없는가? 우리는 인문과학을 할 때 이런 세속정신을 지울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다. 인문과학의 문제점은 그것이 신지(神智)에 기초해 있지 않고 인지(人知)에 근거해 있고, 또 그것이 신본주의(神本主義)의 입장을 취하지 않고 철저한 인간중심주의(人間中心主義)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기독교 인문과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인문과학의 본질과 가치는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그 의미를 둘 때 그 위대함이 있다. 우리가 인문과학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것을 인본주의에서 자유케 해야 된다. 바로 그 때 인문과학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살아난다.

우리 인간이 이 공허하고 비인격적인 우주 가운데 유일무이한 인격체이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라면 실재계의 궁극적 준거점과 통합점은 무엇이며, 또 영원한 것은 무엇이며 어디 있는가? 그 때 인간의 인격이나 자율성같은 인문과학의 재료는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 공허하듯이 하나님 없는 학문도 허무한 것이다. 인간의 창의력이나 지성에서 나온 인문과학은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로 향해야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 인문과학은 위기를 맞고 있다. 수학적인 정확성과 기하학적인 엄밀의 기초 위에서 있다고 자부하는 자연과학적 지식이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열매들과 함께 학문의 맹주자리를 노리고 있는 이 때 인문과학은 그 기세가 크게 위축되고 있음은 물론 그 존립마저 위기에 처하고 있다. 매우 쇠약하게 되었고 인간의 지식을 통합하는 과제는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인문과학자들마저도 어떤 자성적(自省的)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인문과학의 뜻은 무엇이며 가치는 무엇인가? 인간이 실존주의자들의 말처럼 불합리하고 무의미한 세상 속에 갇힌 운명적 존재라면 인간의 인격성과 자유를 이야기하는 인문과학은 무슨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인가? 인생에 의미가 없다면 철학이나 문학을 애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모든 가치들이 상대화되는 이 Post-modernism의 시대에 그 중요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우리는 비록 인류가 달에 오르는 엄청난

과학적 업적을 이룩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눈물과 웃음, 삶의 의미와 방향,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발견하고 얻은 것이라곤 자욱한 먼지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그것과 함께 인문과학의 중요성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실재의 궁극점이요, 모든 의미와 가치의 준거점인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는 인문과학의 의미와 가치를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 가르쳐지는 인문과학의 내용도 허공만 칠 뿐인 것이다.

우리 「통합연구」는 모든 학문을 하나님과 그의 진리 안으로 바르게 통합하고 각 학문의 의미와 본질, 그리고 가치를 정립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번호에도 인문과학의 여러 분야에 걸쳐 그것의 바른 정립을 위해 몸부림친 귀한 옥고들이 수록되게 되었다.

우리는 이런 노력을 통해 인문과학의 본래적이고 당위적인 모습을 회복하고 또 그것을 인본주의로부터 치유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릇된 세계관에 대한 비판도 하고, 지식 문화에 대한 변증도 하며 나아가 기독교 인문과학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다.

1995년 6월

또 한 학기 동안 인문과학 강의를 끝낸 후
편집인 전 광 식